



코로나19 체육수업의 회고: 초등학교 수업 참여 양상과 영향 요인 탐색

손혁준¹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기 체육수업을 되돌아보면서 초등학교의 수업 참여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초등학교 4학년(n=108)을 대상으로 양적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표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는 학생(n=10), 이들을 지도하는 담임교사(n=5)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양적자료는 1차적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심층면담의 질적자료는 귀납적범주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참여척도는 행동 참여(13.6%), 정서참여(16.6%), 인지참여(20.1%), 주체참여(21.9%) 모든 항목에서 낮은 비율의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둘째, 코로나 시기 체육수업에서 초등학교의 체육수업 참여 행동, 수업 참여 동기, 기대감, 반복적 행동 패턴 등 개인적상황적 요소에 따라 체육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참여 양상은 ‘학습된 무기력형, 기진맥진 포기형, 기대와 불안 교차형, 에너지 발산 힐링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사와 학생의 관계적 요인, 수업 환경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감염병이 도래했을 때 새로운 과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주제어 : 초등체육, 수업 참여 양상, 수업 참여도, 코로나19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스포츠키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한 연구임.
1. 세종대학교 강사, zzang81x@snu.ac.kr

I. 서론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 후 우리의 일상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2020년 1월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이후 3년 4개월 동안 학교 교육은 커다란 혼란을 경험하였다. 격일 등교(서울 96.5%, 인천 75.2%, 경기 80.9%), 홀짝 번호제 등 학급 내 분반 방식(48.2%) 등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신규환자와 대규모 집단 발생은 끊이지 않았다(교육부, 2020a). 학교는 전통적인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은 계속하여 변경되었으며(오재호, 2020; 최성광, 최미정, 2021), 교육에 앞서 안전의 우선 순위가 높아지면서 학교 현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대미문의 온라인 개학, 학내 밀집도를 고려한 부분 등교, 마스크 착용과 감염병 예방 매뉴얼 배포 등은 신체 접촉과 활발한 움직임 교육의 특성을 지닌 체육수업에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학교 체육은 여러 제약 속에 방어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수업에서는 전통적인 수업의 어려움에 새로운 난제가 더해지며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불확실한 학사운영으로 인한 교육과정 실행의 어려움(이의재, 제성준, 윤현수, 2020; 천종문, 홍덕기, 2021), 온라인 체육수업 실행의 어려움(손혁준, 이옥선, 2020; 최효근, 박종률, 2021), 신체활동의 양극화 및 구기 종목의 침체(오승현, 2021; 전세명, 2020), 수업과 방역 수칙 준수의 어려움(이영직, 송지환, 2022; 전영한, 2023) 등이 대표적이다.

초등교사들은 혼란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며, 학생들의 움직임 역량(movement competency) 함양과 감염병 예방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혁신교수법을 통한 교육 방식의 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안양욱, 차민철, 장경환, 2022; 이강순, 2022). 온라인 수업은 도전이 아닌 일상이 되어 갔으며, 온-오프라인 연계를 위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과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Project-Based Learning: PBL) 등 디지털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육의 본질은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학적 관점(sociological view)에서 제도적인 경쟁활동으로서의 스포츠(Arnold, 1997)는 교육되지 못하였으며, 학생들이 협력하며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흥미와 즐거움도 반감되고 있었다. 스포츠사회학자 Coakley(1986)가 정의한 ‘격렬한 신체활동, 복잡한 신체적 기술, 내·외재적 요인의 결합을 통한 스포츠 참여 동기’(최의창, 2007, p.4)를 체육수업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협동과 소통이 제한되면서 실천전

통적 관점(the practice view)으로서의 체육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MacIntyre, 1984). 서로 경쟁하고 탁월성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신체활동 형식의 내재적 가치가 실현되고, 정의적 영역에서의 도덕성 향상이 추구되어야 하지만 코로나와 공존하는 체육수업에서는 건강 생심에 그치고 있었다.

코로나는 종식되고 인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학교는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코로나와 공존했던 체육수업의 기억은 먼 추억처럼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과거로서 인류가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위기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지난 코로나 시기에 남겨진 교육적 유산(legacy)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연구자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체육수업에 관한 연구는 교사를 주체로 한 어려움과 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을 주체로 하여 코로나 시기 체육수업의 참여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Bronfenbrenner(1979)의 생물생태학모형을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하였다. 이 모델은 인간 발달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특성에 주목하여, 수업의 주체자인 ‘교사와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업 환경, 학교 시스템, 사회적 제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파악하며 코로나19 체육수업에서의 독특한 현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생들의 체육수업참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학생들의 체육수업참여 양상을 경험적으로 탐색한 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는 종식되었지만 지난 과거를 회고하는 연구를 통해 향후 제2의 감염병이 도래하였을 때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의 인식과 경험을 유추하고 이들을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체육수업에서 초등학교생들의 참여 양상과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양적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반구조화된 설문지(Patton, 2002)를 활용한 포커스그룹면담(Creswell, 2009)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서울 지역 중심가에 위치한

초등학교 4학년 5개 학급을 대상으로 군집표집하였다(Gorard, 2008). 1차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특정한 행동 패턴을 발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는 학생(남자 6명, 여자 4명)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의도적 표집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교사들은 한 학교에서 같은 학년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코로나 시기 학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주 2~3회 학년 수업 협의회를 진행하였고,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 학년 내 여러 학생들의 행동 성향들에 대한 배경 정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교사들이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배경 정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배경 정보

자료수집 방법	대상	인원		학년 또는 교육경력
		남자	여자	
양적설문	학생	54	54	4학년 5개 학급
심층면담	학생	6	4	4학년
	교사	1	4	10년 이하:1, 11-15년 2, 16년 이상: 2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코로나가 발발하고 1년 차 후반기(2020년 11월) 주 5일 중 2~3일 부분 등교가 이루어진 시기에 수행되었다. 코로나 감염자 수가 높은 숫자로 유지되는 시기였으며, 학급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 이상 발생하면 등교가 중지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1차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Reeve(2013)가 수업참여모형을 기반으로 개발한 수업 참여척도 설문지를 국내 체육교육 상황에 적합하게 변안한 문항지를 활용하였다(송용관, 천승현, 김보람, 2017). 연구자는 기 개발된 측정도구를 코로나 시기의 초등학교 체육수업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였다. 개발된 설문문항 및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스포츠교육학 전공 박사 2명과 함께 설문지 원안의 의미가 왜곡되는 것은 없는지(정확성), 코로나 시기의 초등학교 수업 상황에 적합한지(적합성), 원저자가 개발한 문항의 취지를 잘 담고 있는지(동등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며 문항지를 완성하였다. 개발된 문항지는 학생들에게 Likert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 학교 알리미를 활용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득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학생 양적설문 문항지

구분	문항 및 내용
행동참여	1. 나는 코로나19 시기에서도 체육수업에 정말 열심히 참여한다. 5. 나는 체육수업에서 숨이 차고 체력과 운동 기능이 힘든 활동에서도 열심히 참여한다. 7. 나는 코로나19 시기에서도 체육수업에 집중하고 열중한다. 11. 나는 코로나19로 친구들과 활동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지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며 더 잘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한다. 13. 나는 코로나19 시기이지만 체육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정서참여	2. 나는 코로나19 시기이지만 학교에 와서 체육수업을 할 때면 기분이 좋다. 6. 나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체육수업은 늘 재미있고 기대된다. 9. 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도 체육수업이 정말 즐겁다. 12. 코로나19 시기에서도 체육수업은 나의 관심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 14. 나는 코로나19 시기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동안 종종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인지참여	3. 나는 체육활동을 할 때, 이미 알고/배운 것들을 새롭게 배우는 내용과 연결 지어 참여한다. 4. 나는 수업 활동과 게임에서 중요한 방법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을 떠올려서 적용해 본다. 8. 나는 체육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생각들을 잘 정리하여 이해하려고 한다. 10. 나는 체육수업에서 연습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주체참여	15. 나는 체육수업 중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생기면 이를 해소하고자 질문한다. 16. 나는 코로나19 이후 체육수업에서 좋아진 것과 싫어진 것들을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17. 나는 선생님께 코로나19 이전의 수업과 비교하여 내가 관심 있고 흥미로워하는 활동들을 알려준다. 18. 나는 선생님께 내가 선호하는 활동과 의견들을 표현한다. 19. 나는 코로나19 시기에서도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께 건의사항이나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1차적으로 수집된 양적설문 자료의 내용에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추가로 얻기 위하여 답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회 40분 내외의 포커스그룹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1) 코로나19 시기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 (2) 신체활동에 대한 심리적 욕구와 만족감, (3) 체육수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 (4) 수업 참여의 적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체육수업을 지도하는 답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1회 60분 내외의 포커스그룹면담을 2회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1) 코로나19 체육수업의 지도 방법, (2) 체육수업에서 발견되는 학생들의 행동 특성, (3)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4) 체육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의 과정에서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면담내용을 녹음하였고, 면담 후 2일 내 한글파일에 전사를 한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음성 파일 원본은 삭제하였

다. 공식적인 면담 이후에도 자료 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문점이 발생했을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5분 내외의 비공식적인 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여 자료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3. 자료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양적자료는 SPSS 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전사된 자료는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귀납적 범주분석의 연구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이 병행되었으며, 분석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면담 질문 내용을 재구성하는 순환적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Miles, Huberman, & Saldana, 2014). 이를 위해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분석적 메모를 기록하였고, 1차적으로 내용 분류를 위하여 양적설문 문항지의 구분 요소인 ‘행동참여, 정서참여, 인지참여, 주체참여’를 초기 코드로 설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생성된 코드를 비교, 분류하면서 범주들의 계열성을 정리하고 연구문제를 고려한 2차 중간코드를 설정하였다. Nvivo 12의 Matrix Coding query 기능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코드를 비교하며 내용 빈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Cluster analysis 기능을 통해 코드 간의 연관도를 파악하고 재정렬하며 3차 상위코드를 생성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적설문 문항지 개발의 자문을 구했던 스포츠교육학 전공 박사 2명과 함께 삼각검증(Cresswell, 2009)을 실시하였고, 면담 내용의 해석에 대한 교사 참여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연구참여자 검증(member check)과 연구 자료의 분석 과정을 화상회의(zoom meetings)에서 함께 검토하고 해석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동료 검증(peer debriefing)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초등학생의 코로나19 시기 체육수업 참여 인식

코로나 시기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참여척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학생들의 행동참여에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비율은 34.2%였으며, 참여 의지를 드러낸 학생의 비율은 그보다 적은 28.6%에 불과하였다. 정서참여 항목에서 코로나 시

기 체육수업에 대한 기대감은 22.2%로 낮게 조사되었으며,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은 10.1%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코로나 시기 체육수업에서 불안감과 의욕 상실에 동의한 학생이 37%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주체참여의 5개 문항 중 2개 문항에서 체육수업 중 자신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사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54.5%, 52.7%로 조사된 것을 통해 유추하였을 때, 코로나 시기에도 체육수업에 대한 바람이 있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과 교사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표 3〉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척도 기술통계 결과 (n=108)

항목	내용	문항 응답 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동 참여	1. 나는 코로나19 시기에서도 체육수업에 정말 열심히 참여한다.	8 (7.4%)	24 (22.2%)	39 (36.1%)	20 (18.5%)	17 (15.7%)
	5. 나는 체육수업에서 숨이 차고 체력과 운동 기능이 힘든 활동에서도 열심히 참여한다.	16 (14.8%)	32 (29.6%)	42 (38.8%)	12 (11.1%)	6 (5.5%)
	11. 나는 코로나19로 친구들과 활동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지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며 더 잘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한다.	12 (11.1%)	28 (25.9%)	36 (33.3%)	24 (22.2%)	8 (7.4%)
	13. 나는 코로나19 시기이지만 체육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13 (12.0%)	26 (24.0%)	28 (25.9%)	19 (17.5%)	12 (11.1%)
정서 참여	2. 나는 코로나19 시기이지만 학교에 와서 체육수업을 할 때면 기분이 좋다.	9 (8.3%)	14 (12.9%)	25 (23.1%)	37 (34.2%)	23 (21.2%)
	6. 나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체육수업은 늘 재미있고 기대된다.	32 (29.6%)	37 (34.2%)	15 (13.8%)	16 (14.8%)	8 (7.4%)
	9. 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도 체육수업이 정말 즐겁다.	58 (53.7%)	33 (30.5%)	6 (5.5%)	3 (2.7%)	8 (7.4%)
	12. 코로나19 시기에서도 체육수업은 나의 관심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	16 (14.8%)	14 (12.9%)	32 (29.6%)	28 (25.9%)	18 (16.6%)
	14. 나는 코로나19 시기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동안 종종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11 (10.1%)	28 (25.9%)	29 (26.8%)	24 (22.2%)	16 (14.8%)
인지 참여	3. 나는 체육활동을 할 때, 이미 알고/배운 것들을 새롭게 배우는 내용과 연결 지어 참여한다.	12 (11.1%)	16 (14.8%)	38 (36.5%)	30 (27.7%)	12 (11.1%)
	4. 나는 수업 활동과 게임에서 중요한 방법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을 떠올려서 적용해 본다.	11 (10.1%)	18 (16.6%)	37 (34.2%)	31 (28.7%)	9 (8.3%)
	8. 나는 체육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생각들을 잘 정리하여 이해하려고 한다.	9 (8.3%)	17 (15.7%)	39 (36.1%)	33 (30.5%)	10 (9.2%)

항목	내용	문항 응답 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체육수업에서 연습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14 (12.9%)	19 (17.5%)	26 (24.0%)	41 (37.9%)	8 (7.4%)
	15. 나는 체육수업 중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생기면 이를 해소하고자 질문한다.	35 (32.4%)	16 (14.8%)	12 (11.1%)	33 (30.5%)	12 (11.1%)
주체 참여	16. 나는 코로나19 이후 체육수업에서 좋아진 것과 싫어진 것들을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이야기 기한다.	14 (12.9%)	21 (19.4%)	14 (12.9%)	21 (19.4%)	38 (35.1%)
	17. 나는 선생님께 코로나19 이전의 수업과 비교하여 내가 관심 있고 흥미로워하는 활동들을 알려준다.	25 (23.1%)	14 (12.9%)	12 (11.1%)	37 (34.2%)	20 (18.5%)
	18. 나는 선생님께 내가 선호하는 활동과 의견들을 표현한다.	37 (34.2%)	21 (19.4%)	10 (9.2%)	22 (20.3%)	18 (16.6%)
	19. 나는 코로나19 시기에서도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께 건의사항이나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29 (26.8%)	34 (31.4%)	8 (7.4%)	18 (16.6%)	19 (17.5%)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2.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양상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학내 등교 비율 조정, 수업 중 학생들 간 사회적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체육 용기구 공유 금지 등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에서의 수업은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참여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험은 ‘수업 참여 동기, 기대감, 심리적 경험, 반복적 행동 패턴, 스트레스 유발 정도, 가정 및 학급의 확진 학생 발생 비율 등’ 개인적·상황적 요소에 따라 ‘학습된 무기력형, 기진맥진 포기형, 기대와 불안 교차형, 에너지 발산 힐링형’으로 유형화되었다.

가. 학습된 무기력형

학습된 무기력형은 친구와의 대화와 신체접촉이 제한된 체육수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필두로 체육수업답지 않은 체육수업에 대한 기대와 참여동기가 저하된 학생들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체육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체육이 재미없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교사의 발문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체육수업이 재미없어졌어요. 이제 체육수업이 기대되지도 않고, 체육관에 가더라도 하지 말라는 것들만 많아서 오히려 싫어졌어요. (중략) 어차피 못 바뀌어요. 다음 수업도 그렇고 그다음 수업도 그럴 거고. 체육수업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학생 A, 심층면담).

여러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용기구 사용이 제한되었고, 체육수업조차 개인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업 전반의 활기찬 분위기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코로나 체육수업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체육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있었으며, 이는 체육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태도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체육수업이 있는 날 학생들의 복장에서부터 수업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원래 체육수업이 있는 날은 교사에게 아이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은 뭐해요? 운동장에서 해요? 체육관에서 해요? 피구하면 안되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들이 말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복장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체육 시간에 구두를 신거나, 치마를 입고 오거나... 그전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와서 수업 중에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아이들이 늘었어요(교사 C, 심층면담).

이 유형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발문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수업 중에도 ‘재미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서성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체육수업과 달리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으며 선생님의 활동 설명에 실망감을 여과 없이 표현하기도 하였다. 낮은 기대감과 실망감은 수업 중 열외로 이어졌으며, 이는 수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면 고개를 숙이고 바닥의 풀만 뜯는다든지, 다른 곳을 멍하게 바라보거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사실 저는 아이들이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얼굴 표정을 읽는 것도 힘든데, 응시조차 하지 않으니 더 답답할 수밖에 없죠.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중략) 수업 중에 열외자가 많이 늘었어요. 예전과 같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활동도 없고,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니 스스로 책임감도 갖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교사 B, 심층면담).

코로나 시기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참여척도 설문조사에서도 체육수업에 대한 기대감과 즐거움과 관련된 문항(6번, 9번)에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각각 63.8%, 84.2%로 보고되었다. 활발한 신체접촉과 소통이 제한된 체육수업(오승현, 2021)에서 학생들은 낮은 정서참

여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기대감과 참여동기 저하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기진맥진 포기형

기진맥진 포기형은 외출이 제한된 실내에서의 좌식생활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수업 활동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학생들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약 8개월간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며, 체력 저하와 비만 등 신체구성에 변화를 경험한 학생이 다수였으며, 이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 의지와 무관하게 이른 포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집에만 있으면서 살이 많이 찼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뭔가 달라졌다고 느껴지는데,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가끔 덥지도 않는데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럽기도 하고요. (중략) 운동을 거의 못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체육수업 시간에도 언제 종이 지나 시계를 보며 버틸 때도 많아요.(학생 E, 심층면담).

코로나 시기 동안 학생들의 신체활동량 감소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어왔다(손혁준, 안지훈, 2023; Rundle, Park, Herbstman, Kinsey, & Wang, 2020; Youth Sport Trust, 2020).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들도 체력 저하로 인한 체육수업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또한 학생들이 신체 활동량이 많은 활동 안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움직임 활동을 꺼려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제가 활동을 안내하고 나서도 굵땀서 움직임이 느린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예전과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죠. 얼마 전에는 발목 줄넘기를 했었는데 체육관 바닥에 주저앉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동안 교실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체육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체력 저하가 듣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움직이는 것을 꺼려 하면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늘었어요(교사 D, 심층면담).

이들 유형의 학생들은 활동 시간이 경과할수록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가만히 서 있거나 주저앉는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 특성은 체력 저하에만 기인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루어지는 체육수업에서 호흡곤란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 중 수차례 빈 공간으로 이동하여 마스크를 내리고 심호흡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해요. 호흡이 힘들다 보니 ‘어지럽다, 힘들다, 가슴이 답답하다’와 같은 말을 많이 해요. 규정상 사회적 거리 유지가 제한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많이 떨어진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호흡을 정리하라고 안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활동 공간을 벗어나서 마스크를 내리고 거칠게 숨 쉬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교사 A, 심층면담).

운동장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거친 호흡과 땀으로 상징되었던 체육수업과 어울리지 않는 마스크라는 사회적 제약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의 심리적 경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 또한 호흡이 제한되는 체육수업에서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의 호흡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수업 공간을 이탈하면서 수업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 기대와 불안 교차형

기대와 불안 교차형은 체육수업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과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상치하면서 수업 중 활동 참여 수준을 고민하는 학생들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기대해 왔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사회화된 인식을 통해 친구들 주변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신체적 접촉, 마스크를 벗는 행동 등이 자신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을 제일 좋아하고 기다려왔는데 친구들과 운동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마스크가 코 아래로 내려가는 친구나 가까이에서 공을 잡으러 오는 친구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뒷걸음치기도 해요(학생 B, 심층면담).

이들 유형의 학생들은 신체 접촉을 피하고, 친구와 몸이 닿았을 때는 놀라거나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과 같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밀어내고 있었다. 또한 거리 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학생이 보이면, 교사에게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신체적 접촉과 다가가는 행동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체육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끼리 몸이 닿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교사에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급 전체 분위기가 체육수업에서 열심히 뛰다가 의도치 않았지만 부대끼게 되면 안 된다는 무언의 규칙 같은 게 생겨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거리 두기를 강조는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너무 예민하게 불안해하고, 때로는 사람 자체를 감염원으로 보는 듯한 인상도 받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교사 C, 심층면담).

교사들은 체육수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용기구에 수시로 알코올 소독제를 뿌리며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손이 닿은 공, 스틱, 라켓 등 용기구 사용에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부 학생은 체육수업에서 쉴드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채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체육수업의 맥락적 환경들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체육수업 내 감염병 전파의 불안함을 초래하였고, 이에 무감한 학생들조차 기대와 불안이 상존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제한하게 하는 잠재적 수업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반 아이 한 명이 체육시간만 되면 쉴드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장갑을 껴요. 그리고 가정에서 강조하셨는지, 지나치게 친구들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교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말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겠죠. 이런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옥죄는 것 같아요. ‘감염병? 괜찮아. 난 열심히 운동할 거야.’ 했던 아이도, 교실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의 흐름을 읽으면서 자기 행동을 제지하고,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교사 B, 심층면담).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시기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참여척도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육수업에서의 불안감을 확인한 문항(14번)에서 37%의 학생이 동의하였으며, 행동 참여에서의 적극적 참여도를 확인한 문항(1번, 13번)에서도 각각 29.6%, 36%의 학생이 부정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학교의 규칙, 사회 인식, 친구의 시선에 구속되어 감시받고 통제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박용남, 손혁준, 2023).

라. 에너지 발산 힐링형

에너지 발산 힐링형은 제한된 등교일의 체육수업을 기다려 온 만큼 친구들과의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땀 흘리고 뛰어다니며 신체 활동량에 만족하고 기분 전환도 동시에 추구하는 학생들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신체 활동을 제한시켰던 여러 부정적인 요인보다 체육

수업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강한 학생들이었으며,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 시간만 기다려왔어요. 평소에는 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요. (중략) 태권도 학원도 계속 다녔어요. 코로나가 걱정되는 건 맞는데 마스크 잘 쓰고 뛰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동을 해서 몸이 튼튼해져야 감염도 줄이고 건강하게 치료된다고 들었어요(학생 G, 심층면담).

이 유형의 학생들은 수업 시작에서부터 체육관과 운동장에 빠르게 뛰어 들어오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땀을 흘리고 숨이 차더라도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하였고, 주변 친구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큰 소리로 응원하고 독려하기도 하였다. 수업 참여척도 설문지의 주체 참여 항목의 문항(18번, 19번)에서 각각 36.9%, 34.1%의 학생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수업의 여러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교사에게 수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활동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코로나와 무관하게 체육수업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체육수업 팬심이 강한 아이들인데, 마스크를 끼고도 땀을 뻘뻘 흘리며 정말 열심히 참여해요. 숨이 차니까 조금 쉬었다 하라고 말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요. (중략) 활동에 조금 소극적인 아이들이 보이면 옆에다가 가서 박수 치고 격려하면서 열심히 하자고 독려하기도 하죠. 마스크를 쓰고 뛰는 모습이 다소 가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해요(교사 A, 심층면담).

학생들은 체육수업이 끝난 후 교사에게 ‘즐거웠다, 더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체육수업은 답답한 코로나 일상에 활력소가 되었으며, 이기기 위한 갈등과 다툼보다는 체육수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 발발 초기 온라인 학습을 통해 제한된 체육수업을 경험해왔었기에, 이들에게 체육수업은 더 이상 이기기 위한 수업이 아닌 즐기면서 쏟아내고 힐링 받는 수업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업 중에 다툼이 생겼는데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애들아.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해?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조금씩만 양보하고 즐기자.’ 이 말을 듣고 감동도 받았지만 마음 한편에 안타까움도 크더라고요. 그동안 체육수업이 얼마나 간절했는

지,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희망을 제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 이후로 저도 아이들에게 '이 순간을 간절하게 즐기자'라고 하면서 수업을 대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교사 C, 심층면담).

학교 내 등교 인원 비율 조정으로 제한된 대면 수업 일정 속에 학교에서의 모든 일상이 소중했고,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에서의 경험은 친구들과 땀 흘리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경험은 체육수업이 학생들의 감정정화와 마음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윤범찬, 송용관, 2022; 전용진, 손천택, 2006). 코로나 시기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은 양극화되었으며, 협력적 경쟁 활동이 침체된 개인 중심 활동에서도 에너지를 발산하며 마음을 정화시키는 체육의 효과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학생 체육수업 참여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코로나 시기 체육수업에서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Bronfenbrenner(1979)의 생물생태학모델을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하여 탐색하였다. 생물생태학 모델을 통해 체육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요구사항을 학교를 둘러싼 맥락적 환경을 통해 구분 지어 살펴보았다. 이를 재구조화하여 미시체계로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적 요인', 외부체계로서 '수업 환경적 요인', 거시체계로서 '사회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적 요인

교육부에서는 등교수업을 시작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방역 세부지침(교육부, 2020b)을 발표하였다. 등교 이후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후 귀가 조치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교사들의 수업 운영 및 방역 조치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다. 교사들은 수업 중 거친 호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강도의 신체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였고, 수업 중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과도한 관리 및 통제는 활발한 신체 접촉과 협력적 소통에 기반한 체육수업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체육수업에서의 방역지침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상적인 체육수업 운영에 제한적인 부분들

이 많이 있어요. 교사의 입장에서 지키지 않을 수 없죠. 감염병 확산도 무섭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한 걱정도 커요.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체육 수업에서 제한 사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과거와 같은 체육수업으로 비치지 않는거죠(교사 A, 심층면담).

학생들은 서로 간의 신체 접촉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동료 학생의 소극적인 운동 참여가 적극적인 학생들의 신체활동마저 제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학생이 조심하는 가운데 열심히 소수는 교사에게 관심 학생이 되었고, 동료 친구들에게도 완벽한 타인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또한 장기간의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급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이 약했던 시기적 상황 또한 서로의 행동을 낯설게 인식하도록 하면서 경계하며 주체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같은 반 친구이지만 서로가 잘 몰라요. 학교를 계속 오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친구들이 조심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피하고 있는데, 저 혼자 체육수업이 좋다고 막 뛰어나다니면서 열심히 하면 조금 이상한 아이로 보일 것 같아요(학생 C, 심층면담).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두려움으로 학생과 학생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었으며, 교사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하여 적극적인 피드백과 소통을 꺼려 하는 가운데 체육수업 전반에서 소극적 참여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었고, 거리 두기를 빙자한 조심성과 소극성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체육수업 문화로 정착되고 있었다. 학생들의 수업에서 소규모 그룹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행동적 측면(주의집중, 노력)과 정서적 측면(흥미, 열정)이 함양되고 이는 곧 수업의 성과에 효과적으로 이어진다는 점(Skinner, Kindermann, Furret, 2009)에서 코로나 체육수업의 학생들 간 제한된 상호소통 구조는 소극적 참여와 부정적 심리경험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Love, 2014; Nyststrand, 2006).

나. 수업 환경적 요인

코로나 시기 체육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였던 경쟁 영역의 지도 비율이 감소하고 개인 활동 중심의 건강, 도전 영역을 중심으로 수업이 재편되어 운영되었다(손혁준, 정현수, 장경환, 2022; 최현규, 조순목, 2021). 주 3회 체육수업 중 일부 차시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온오프라인 수업의 연계성은 부재하였고, 일부 체육수업은 타교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전세명, 2020). 신체활동형식 본연의 체육수업 특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매뉴얼의 가이드라인과 충돌하면서 여러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였다(양동석, 유은혜, 조건상, 2020; 이영직, 송지환, 2022). 체육수업 운영의 여러 장애요인들이 학생들의 부정적 심리 경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면서 온전한 형태의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제한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업 환경 구성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운동장 수업에서 아이들이 몇 미터씩 떨어져 있는데 마스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벗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쓰고 있어야 하고요. 학생과 교사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체육수업을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교실 수업으로 변형해서 운영해 보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많아요(교사 E, 심층면담).

체육수업은 단조로워졌으며 개인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실행되면서 협력과 소통이 필수였던 체육수업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김철민, 2021; 손혁준, 2022). 이로 인해 학생들은 수동적 참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으며, 단조로운 활동 과제와 수업의 구조는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잃게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수업에 대한 무기력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있었다.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 학생들끼리 공을 주고받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지침을 준수하려면 한 명이 공을 던지고 받기 전에 알코올 소독제를 뿌리고, 그리고 상대편 학생이 공을 받아야 하는 거죠. 불가능하겠죠?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체육에 절대 불리한 상황이에요. 체육수업의 질도 낮아졌고, 소극적인 아이들에게 적극성을 요구하기도 미안하다고 봐야죠(교사 A, 심층면담).

체육수업을 둘러싼 환경들의 맥락적 요인들은 교사의 수업 지도를 위축시키고 이는 학생들의 소극적 행동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Thayer-Bacon, & Bacon, 1996). 학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교사-수업내용-학생과의 연계를 통한 수업 운영과 상호작용을 단절시키고 있었고, 이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성찰과 수업 참여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김민성, 2015; Rocca, 2010). 학생들의 부정적 심리 경험은 교사와 학생의 개별적 문제를 넘어 체육수업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적, 상황적, 경험적 참여 환경 전반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사회 문화적 요인

코로나 발발 초기 등교 제한에 이은 온라인 개학은 학교의 역할에 대한 실망과 함께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학교 구성원들 또한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였다(박지숙, 김화연, 이숙중, 2021; 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남슬기, 2020). 거리 두기가 미덕이 된 사회 분위기와 체육수업을 통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들은 교사와 학생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 문화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이는 학교 교육에서 코로나 감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다.

매일 저녁 뉴스를 통해 코로나 소식을 접하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 올 때 두려움이 컸어요. 누군가 기침을 하거나 열이 조금이라도 나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체육수업 때도 에어컨은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니, 체육관에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수업을 하는데 땀에 범벅이 된 아이들이 마스크도 젖어 제 기능을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몸을 움츠리면서 코로나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해요(교사 E, 심층면담).

학부모로부터 습득된 방어적 예방 행동 기제는 선생님의 체육수업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감염병 예방 지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심적 책임감과 함께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적 처분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학급에서 감염이 집단적으로 발발하면 수업의 내용, 체육관 환기 여부, 용기구 소독 여부 및 감염병 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 속에서 교사들은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수업 활동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언가 연구하고 새로운 수업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회 전체가 코로나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상황들도 올 수 있거든요. (중략)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요. 학생들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 싶으면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고 있으니까요(교사 B, 심층면담).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과 거리 두기가 미덕이 된 사회적 분위기는 체육수업의 내용과 지도 방법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교사 스스로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게 되었으며, 외부의 감시로부터 억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리 두기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자기 감시(self-surveillance)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남상우, 2014). 학생과 교사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체력 저하, 개인 중심 활동,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율들을 자기 감시를 통해 강요받으며 학생들의 심리적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박용남, 손혁준, 2023).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체육수업을 되돌아보면서 초등학생의 수업 참여 경험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의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참여척도를 조사한 결과 행동참여(13.6%), 정서참여(16.6%), 인지참여(20.1%), 주체참여(21.9%)에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의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며, 학생들은 불안감과 의욕상실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 기억을 바탕으로 활발한 신체 활동과 협력적 소통에 기반한 체육수업에 대한 기대감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 시기 체육수업에서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참여 행동, 수업 참여 동기, 기대감, 반복적 행동 패턴, 스트레스 유발 정도, 가정 및 학급의 확진 학생 발생 등 개인적·상황적 요소에 따라 체육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수업 참여 양상은 ‘학습된 무기력형, 기진맥진 포기형, 기대와 불안 교차형, 에너지 발산 힐링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Bronfenbrenner(1979)의 생물생태 학모형을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하여 ‘교사와 학생의 관계적 요인, 수업 환경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감염병이 도래했을 때 새로운 과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육수업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시기의 체육수업에서 초등학생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학적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오프라인 수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학생의 자기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 역량을 강화하고, 체육수업에서도 디지털테크놀로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육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요인을 탐색하고, 학생들의 신체적 역량과 심리적 기대로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육수업이 운영되어야 한다. 신체활동 역량을 함양하고 실천적 전통으로서 체육수업의 본질을 지향하기 위한 관점을 견지하기 위한 수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 위기 극복의 소중한 경험적 자산이 미래의 새로운 과거로서 의미 있는 유산으로 활용되기 위해 지난 시기를 회고하고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는 반복되어 똑같은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류가 극복한 코로나의 위기를 되돌아 보면서 체육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규제와 지침을 넘어 수업의 장애가 되었던 여러 요인들을 극복하면서, 협력과 소통을 통한 신체활동형식 중심의 체육수업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논문 투고일: 2024. 1. 1. ※ 논문 수정일: 2024. 2. 19. ※ 게재 확정일 : 2024. 2. 28.

〈참고문헌〉

- 교육부(2020a).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마련 (2020.06.16. 보도자료)
- 교육부(2020b).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 라인 마련 (2020.05.07. 보도자료)
- 김민성(2015).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대학수업의 운영방식과 참여구조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심리연구**, 29(1), 135-168.
- 김철민(2021). 코로나 19 상황 중 교육실습에 참여한 예비체육교사의 경험과 의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8(2), 49-72.
- 남상우(2014). 스포츠에서의 감시연구 확장: 파놉티콘과 시놉티콘, 밴옵티콘의 관계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2), 55-76.
- 박용남, 손혁준(2023). 신자유주의 시대 몸과 학교체육에 나타난 규율사회와 관리사회.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 4(1), 11-24.
- 박지숙, 김화연, 이숙중(2021). 20 대 여성들의 코로나 19 로 인한 불안이 정부신뢰와 공동체신뢰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코로나블루와 코로나레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2(3), 95-117.
- 손혁준(2022). 코로나 19 체육수업의 체계적 문헌 분석을 통한 학교체육수업 운영 방안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61(1), 55-71.
- 손혁준, 안지훈(2023). 초등학교의 신체활동량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8(4), 47-62.
- 손혁준, 이옥선(2020). 중등 체육교사의 온라인 체육수업 지도양상과 영향 요인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9(6), 157-175.
- 손혁준, 정현수, 장경환(2022). 코로나 19 상황에서 부설초등학교의 교육실습 운영에 관한 단일사례연구.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7(4), 17-34.
- 송용관, 천승현, 김보람(2017). 체육수업 참여척도 타당화 검증: 현장적용 및 활용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6(4), 133-145.
- 안양욱, 차민철, 장경환(2022). 코로나 19 시기 초등학교의 대면 체육수업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7(4), 69-87.
- 양동석, 유은혜, 조건상(2020). 코로나-19 에 대처하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현실과 개선방안.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2), 131-144.
- 오승현(2021). 체육수업의 오래된 미래: 코로나 19 속 체육수업의 성과와 그 이면. **한국체육학회지**, 60(5), 465-480.
- 오재호(2020). **코로나 19 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 & 진단, 1-25.
- 윤범찬, 송용관(2022). 방과후학교 체육활동 참여가 초등학교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정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24(2), 93-102.
- 이강순(2022). 코로나 시대 초등학교 표현 영역 수업 현황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8(2), 41-51.
- 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남슬기, 김지윤(2020).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 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119-2156.
- 이영직, 송지환(2022). 코로나 공존 상황에서의 초등학교 체육수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7(5), 173-187.
- 이의재, 제성준, 윤현수(2020). 코로나 19 팬데믹 (pandemic) 상황에서 고등학교 경력 체육 교사가 겪는 온라인 수업 실천의 어려움과 극복 전략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339-362.
- 전세명(2020). 초등체육전담교사의 온라인과 등교수업 적용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3), 29-42.
- 전영한(2023). 초등학생들이 체육수업 시간에 경험하는 성평등 갈등에 대한 탐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0(3), 101-117.
- 전용진, 손천택(2006). 중학생이 체육수업에 체험하는 정서경험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2), 119-137.
- 천중문, 홍덕기(2021). 코로나 (COVID-19) 시대 초등체육 현장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대처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8(1), 241-262.
- 최성광, 최미정(2021). 코로나 19 에 대응하며 현장교사들이 경험한 ‘K-교육’에 대한 FGI (Focus Group Interview)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5(2), 179-189.
- 최의창(2007). 체육교사교육에서의 인성교육 탐색: 현황, 동향, 과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1-23.
- 최현규, 조순묵(2021). 코로나 이후, 온라인 체육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535-560.
- 최효근, 박종률(2021).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초등학교 체육수업 실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8(1), 223-240.
- Arnold, P. (1997). *sport, ethics and education*. Cassell: London.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akley, J. (1986). *Sport in society: Issues and controversies*. St Louise: Times Mirro/Modby.
- Creswell, J. W. (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3rd ed.)*. London: Sage.
- Gorard, S. (2008). *Quant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Volumes 1 to 3*. Sage Publications.
- Love, B. (2014). Finishing strong: End-of-class review to improve relationships, measurement, and learning outcomes. *College Teaching*, 61, 151-152.
- MacIntyre, A. (1984).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2nd ed.)*. Notre Dame, IL: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iles, M. B., Huberman, A. M., & Saldana, J. (201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method sourcebook*. CA, US: Sage Publications.
- Nystrand, M. (2006). Research on the role of classroom discourse as it affects reading comprehension.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40, 392-412.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Reeve, J. (2013). How to create motivationally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s for themselves: The concept of agentic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5, 579-595.
- Rocca, K. A. (2010).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college classroom: An extended multidisciplinary

- literature review. *Communication Education*, 59(2), 185-213.
- Rundle, A. G., Park, Y., Herbstman, J. B., Kinsey, E. W., & Wang, Y. C. (2020). COVID-19-Related School Closings and Risk of Weight Gain Among Children. *Obesity*, 28(6), 1008-1009.
- Skinner, E. A., Kindermann, T. A., & Furrer, C. J. (2009). A motivational perspective on engagement and disaffection: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children's behavioral and emotional participation in academic activities in the classroom.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9(3), 493-525.
- Thayer-Bacon, B. J., & Bacon, C. S. (1996a). Caring in the college/university classroom. *Educational Foundation*, 10(2), 53-72.
- Youth Sport Trust(2020). *Evidence Paper: The Impact of Covid-19 Restrictions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Abstract〉

Retrospectives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during COVID-19: Explor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Son, Hyukjun¹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back at physical education classes during COVID-19 to explo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clas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it. A quantitative survey was conducted among fourth graders (n=108),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tudents who exhibited typical behavioral characteristics (n=10) and their homeroom teachers (n=5). The quantitative data collected were subjected to primar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qualitative data from the in-depth interviews were subjected to inductive category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students' class participation scale in physical education class had a low percentage of positive responses in all items of behavioral participation (13.6%), emotional participation (16.6%), cognitive participation (20.1%), and subject participation (21.9%). Second, the participation patter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during the COVID-19 period were categorized as 'learned lethargy, exhaustion and abandonment, intersection of expectation and anxiety, and healing through energy dissipation' according to personal and situational factors such as participation pattern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class, expectations, and repetitive behavior patterns. The factors affecting this were analyzed by categorizing them into 'teacher-student relationship factors, classroom environment factors, and socio-cultural factors' and discussed to draw implications for effectively dealing with the new past when the epidemic arrives.

Keywords :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experience, class participation, COVID-19

1. Lecture, Sejong University, zzang81x@snu.ac.kr